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전세기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트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을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주식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시가총액 약 2조원 이상의 전세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이익/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발굴을 위해 애널리스트들의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자료에 기반을 두는 상향식(Bottom-up)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금융시장 상황, 투자자산군 별 리스크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 및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03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1,064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772억 원

펀드유형 채권혼합형, 모자형, 종류형
- 채권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주식모투자신탁 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7년 05월 02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5년 06월 29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7년 08월 2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24년 09월 27일

벤치마크 MSCI AC World Local (T-1)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 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HSBC(수탁사)

월 증 환헤지 비중 95.1%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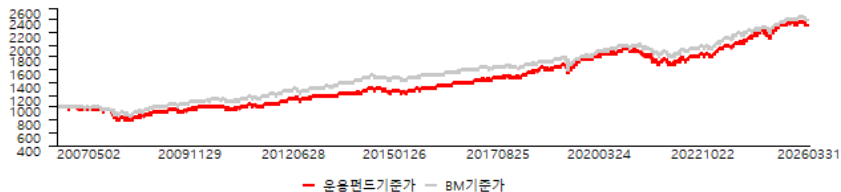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4.65%	-3.37%	-3.54%	5.23%	13.58%	26.96%	22.36%	126.34%
클래스 C-P(퇴직연금)	-4.75%	-3.66%	-4.12%	3.98%	10.91%	22.50%	15.27%	54.47%
클래스 C-P(퇴직연금)E	-4.72%	-3.57%	-3.96%	4.34%	11.66%	23.75%	17.24%	52.23%
클래스 C-P2(연금저축)E	-4.73%	-3.58%	-3.98%	4.29%	-	-	-	5.84%
벤치마크	-3.73%	-2.37%	-1.32%	5.06%	11.41%	23.30%	22.80%	13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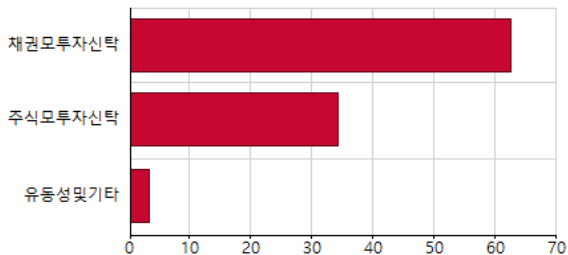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3월말 기준)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채권모투자신탁	62.7
2	주식모투자신탁	34.2
3	유동성및기타	3.2



상위 보유 종목

종목명(3월말 기준, 주식모투자신탁 주식비중)	비중(%)
Tokyo Electron Ltd	2.9
NVIDIA Corp	2.5
Amazon.com Inc	2.1
Tencent Holdings Ltd	2.0
Alphabet Inc	1.7

종목명(3월말 기준, 채권모투자신탁 채권비중)	비중(%)
국고02250-2806(25-4)	12.0
국고02750-2812(25-10)	9.3
롯데카드539-4	7.6
국고03750-3312(13)	4.7
JB 우리캐피탈530-4	4.7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2% (판매 0.69%)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86% (판매 0.35%)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0.94% (판매 0.43%)

(공통사항)

운용 0.45%, 신탁 0.04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C-P, C-PE, C-P2E: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이란 관련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갈등이 5주차에 접어들며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었고, 국제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부담과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하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고유가와 기업 이익률 압박 우려로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이어진 반면, 에너지 업종은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금리 하락과 정책 완화 기대 속에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아시아 증시는 글로벌 기술주 부진과 외국인 자금 유출 영향으로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캐나다 등 원자재 비중이 높은 시장은 에너지-소재 업종 강세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모펀드에서는 종목 선택 효과가 펀드 상대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자산배분은 일부 긍정적 기여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IT 및 에너지 업종에서의 종목 선택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재량소비재 역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필수소비재 업종에서는 종목 선택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종목 선택이 펀드 상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채권시장은 2월 말 금통위 이후 금리 인상 경계가 완화되었으나, 3월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되며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점검회의 가동, 13조 원 규모 금융지원 및 '100조 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가동 의지를 표명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금리 상승 압력을 되돌리기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공급망 우려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며 금리 상승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속매입과 기재부의 바이백-순상환 계획 등 안정성 확보에 불구하고, 매파적 FOMC와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의 매파적 성향 부각 등 여러 요인으로 금리 상승세는 지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속에 시장 약세가 이어졌으며,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51.5bp 상승한 3.555%, 10년 금리는 43.2bp 상승한 3.877%로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3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긴장 국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가운데, 에너지 공급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시키며 시장 변동성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업종 및 스타일 간 성과 차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수익성 가시성이 제한된 일부 성장주에 대해서는 선별적 접근이 이어지는 반면, 실적 안정성과 가격 결정력을 보유한 기업 및 에너지-소재 업종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펀드 운용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실적 회복력과 이익 가시성이 높은 종목 중심의 접근을 지속하는 한편, 고밸류 성장주 비중은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산 효과를 강화하며 중장기 투자 기회를 선별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2월 금통위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채권시장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에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주요국 전반의 긴장 국면이 재차 고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국내 채권시장은 국고 3년 금리가 3.5%를 상회하며 긴축 우려가 확대되었고, 차기 한은 총재 인선 과정에서 매파적 기대가 반영된 점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500원을 상회하며 대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유가발 긴축 우려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가운데, 전쟁 리스크 완화 시 과도했던 금리 상승분의 되돌림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적자국채 없는 추경 기조, 국고채 단속매입 및 바이백, 발행량 조절 등 정책 대응과 WGBI 자금 유입이 금리 상단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고려할 때 수급 요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채권시장은 ① 지정학 리스크 전개 과정과 유가 흐름 ② 코어 인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폭 ③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반영 여부 ④ 미 사모대출 부실화 여부 등에 따른 신용위험 ⑤ 신임 한은 총재 청문회 발언 ⑥ 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규모 ⑦ 국내 시장금리 안정을 위한 정책조치 등 대내외 자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고 3년 금리는 3.30~3.70%, 국고 10년 금리는 3.60~4.00% 레인지를 전망합니다. 수익률 곡선 측면에서 미-이란 전쟁 격화에 따른 고유가 국면은 연내 긴축 우려를 자극하며 단기 금리 중심의 상승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커브는 베어 플래트닝 압력이 우위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고 3년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를 약 100bp 상회하며 정책금리 인상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시 단기를 중심의 금리 되돌림이 나타나며 단기 구간 주도의 볼 스티프닝 전환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와 당국의 국고채 및 공적채권 발행량 조절 의지가 장기금리 금리 상단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 고유가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6월 선거 전후 추경 및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은 기간 프리미엄을 자극하며 장기금리 중심의 스티프닝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쟁 장기화가 실물 경기 위축 및 디플레이션 우려로 전이될 경우,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부각되며 장기 금리 하락과 함께 커브는 재차 플래트닝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흐름, 통화정책 기대, 수급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커브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